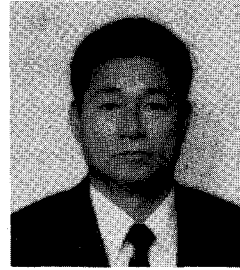


육계업이 나가야 할 방향



최길영

-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 영남농장 대표

1999년, 기묘년의 한 해는 양계 전반적으로 무겁고 침울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파란만장했던 한 세기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왔음을 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지켜본다는 그 자체에 가슴이 설레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 우리의 생활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봄부터 신종 질병인 저혈당증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봐야했다. 그리고 수입 자유화 물결은 어려운 우리 업계를 더욱 어렵게 했다. 마치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하는 배처럼 육계가 격이 저 깊은 바다 밑을 헤메었다.

인건비는 물론 순수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라고 하지만 국산 닭고기를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나몰라라 외면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업종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우리 농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만 몇 훗날 희망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배고픈 허리를 더 이상 조일 수 없는 상황에서 육계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짧은 소견이나 마 몇가지 제시를 해 보고자 한다.

1. 육계 생산조절 위원회 구성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외식산업이 빠른 속도

로 발전하면서 우리 육계산업도 함께 성장해 온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순수 인력을 사용하던 시대에서 기계화로 인해 생산규모도 확대되었다. 지난 수년간 전국 어디서나 양계장 짓는 열기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방불케했다.

정부의 정책인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다 보니 질적인 성장을 뒤로 미룬 채 양적인 성장만 거듭하여 가격의 등락이 한달에 몇번씩 일어나고 있는게 최근의 실정이다.

한때는 육계업을 "한탕주의" 사업으로까지 비유할 때도 있었다. 조금만 호황이 지속되면 종계입식이 많아져 불황의 씨앗을 뿌려야 했고 그러다 불황이 닥치면 자금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업인 육계업을 포기하는 불균형 현상을 많이 보여왔다. 이제 수입닭까지 가세하여 어려운 우리 업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양계업은 우리 업자가 스스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닭 숫자는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소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보니 번번히 시세가 빛나가기 십상이다.

종계입식부터 닭고기 생산과 예측 자료를 만들어 과잉의 불씨를 조기에 없앨 수 있도록 적정 숫자의 종계입식을 권장하여 병아리 가격 안정을 기하게 하고 종계업자는 품질 좋은 병아리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면 육계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육계생산자 단체, 계육 생산자 단체 등 산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들로 하여

협의체 구성을 만들어 운영하되 위탁 사육자와 자가 사육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우리 육계 생산자들도 궁지와 자부심으로 질 좋은 육계 생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품 개발에 힘써야

1986년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미국의 영양학을 전공한 박사를 만나게 되어 필자가 질문을 해보았다.

거대한 미국의 나라에서는 어떤 닭고기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는 닭고기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여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영양학 박사님은 오히려 필자에게 질문을 했다.

당신은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하여 왔다.

1986년 현재 미국의 시장에 팔리고 있는 닭고기 제품은 1,200여가지 정도되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자기 기호에 맞는 닭고기를 선택할 뿐이라고 말을 했다.

정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고작해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 겨우 10여가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2,000여가지 닭고기 요리가 세계시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소비자가 어떤 제품의 닭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육계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본다.

십여년 전만해도 40~50여 주부가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 주인공이었다.

핵가족화 되면서 식구수가 줄어들게 되는 반면 맞벌이 부부로 인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닭고기 요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었다. 주로 외식쪽이나 연령층이 낮은 소비자가 많이 늘어났다.

변화되는 소비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을 겨냥한 제품 개발이 더욱 많아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는 영양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으나 앞으로는 그것만으로 소비자의 발길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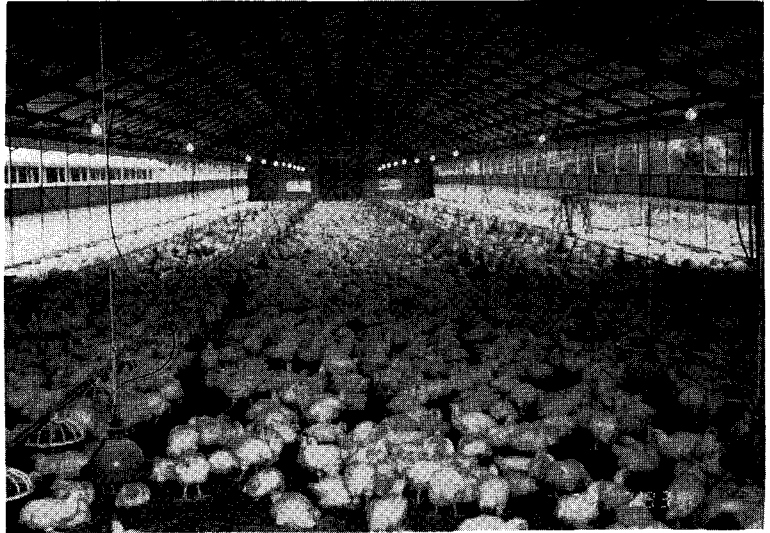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영양이 부족하여 고기 먹는 시대는 지나갔다.

눈으로 볼잡는 제품 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맛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포장, 모양, 색깔, 형태 등 여러 가지 제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시선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맛과 시선을 잡는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사용 용도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나 구입이 가능한 제품 개발이 될 때 우리 육계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3.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만전을

벨기에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우리 육계 업계에서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다. 닭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돈 콜레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인력



을 동원해 예방을 실시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육계도 신종 질병인 저혈당증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의 고기는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고기 통관에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의 건강과 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예전보다 더 많은 고기가 수입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게 위생과 방역이 아닌가 싶다.

일차적으로 생산자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질병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도계과정이라든지 제품 제조, 제품 보관에도 조그마한 허점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업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폐기처분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4. 수출모색의 길 찾아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육계 수출이 아닌가 싶다. 수출을 하고 있으나 전략적인 상품만 수출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 필자는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 지원을 받고 수의과학검역원의 도움을 받아 5년전부터 수출용 닭을 키워 보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무난히 수출품 규격인 2.5kg 이상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을 겨냥한 실험이었다.

업계가 노력만 한다면 일본 시장에도 한국산 닭고기 상표를 붙인 닭고기를 진열대에 자랑스럽게 진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본다.

구랍 11월초에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주선으로 육계업계 대표들과 농림부 연구기관 등 업계 관계자들이 필자의 농장에 수출용 닭을 키워 놓은 것을 실제로 견학을 하였다.

수출용 닭을 키우기가 어려워서 시도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견학과 현물을 보고서야 수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수출만 이루어진다면 첫째는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나라에 육계 생산비중에 병아리 생산비를 대폭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국내 닭고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반면

육계 농가들의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수익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어려운 육계 농가들의 자금압박을 덜어 주어 좀 더 희망차고 알찬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업계가 일치 단결해야 하고 정부의 좋은 정책 배려와 아낌없는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까지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허우적 거려야만 하겠는가?

어렵지만 틈새를 비집고 창의적인 업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우리 업계에는 희망이 절실하다. 뒤돌아보면 아픈 상처가 많은 업계이지만 우리가 이 만큼 이나마 와 있는 것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참고 맺은 결실이라고 본다. 새 천년에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선구자가 되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낼 때 미래가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21세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짙게 자리잡을지 모른다. 미래 사회를 지배할 무한한 경쟁사회에서 말이다.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주의는 불안한 향로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방심한다면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은 우리는 긴 호흡을 통해 공동체의 맞물림이 되어 전문화, 고급화된 지식을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 천년에는 보다 더 밝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기를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기다려 보면서
..... 양계